

특별기고



박승렬  
전남환경산업진흥원장

도시화에 따른 물순환 왜곡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가뭄, 홍수 등 재난은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여기에 지구온도의 지속적 상승에 따라 폭염, 한파 등 기후재난 발생빈도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8년 전 지구적으로 겪은 폭염의 경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전국 평균 폭염일수 29.2일(평년 8.7일), 열대야 일수 15.7일(평년 4.4일)로 통계작성 이후 최대 또는 1994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또한 2021년 1월에서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스마트그린도시 구축

월에 걸친 전지구적 한파는 미국 텍사스 대정전 사태를 불러왔으며 한국의 경우 일 최저기온이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영하 12도 이하까지 내려가는 등 극심한 추위를 가져왔다. 이러한 기후 위기 속에서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면 증가는 기후 변화에 따른 강우 패턴의 변화와 함께 우리 사회에 직접적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실화된 기후위기

2020년 54일간의 장마와 전국 누적강수량 920mm(여름철 평균 570mm) 기록은 가까운 미래에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현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스마트그린도시 사업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미래 환경도시 구현을 비전으로 기후변화 대응력, 지역사회 포용성, 환경질 제고를 위한 정부사업이

다. 전국 25개 지자체가 선정이 되었으며 우리지역에는 순천, 강진, 장흥, 해남 등 4개 시군이 선정돼 사업을 진행중에 있다.

그 중 전남환경산업진흥원에서는 순천시 스마트그린도시 사업을 컨설팅 하여 순천시 장천동 고가도로 인근 구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물순환 회복과 기후변화 회복탄력성을 확보하는 사업을 제안(장천동 고가 및 청(淸)水(水)園(園) 조성 사업)하여 선정되었다. 순천시를 중단하는 동전의 서측에 위치한 장천동은 대표적인 구도심 지역으로 고가도로, 지하도, 철도가 지나가는 교통의 중심지이나, 토지 대부분(95%)이 불투수면적으로 피복되어 있으며 고물상이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등 주거환경적인 측면에서 인간중심의 생태복원 및 물순환 회복이 요구되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진행중인 이 사업은 도시 전 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순천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생태적 가치를 제고하고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물상 부지에 생태정원을

조성하고 고가도로 하부 공간의 녹지화, 벽면녹화 등을 통해 그레이인프라를 그린 인프라로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각 지자체 관심·투자 관심

순천시 스마트그린도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게 되면 장천동 주민들의 정주여건은 분명 이전보다는 더 나아질 것이다. 그러나 왜곡된 물순환이 개선되거나 기후위기가 왔을 때 얼마나 많이 경감되는지는 체감되지 않을 수 있다. 기후 위기 대응이나 물순환 회복은 어느 하나의 단위 사업으로 개선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예산투자와 관심 등 정책적 일관성이 유지될 때 기후위기 탄력성 및 물순환 회복이 얻어질 수 있다. 향후에도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이 다른 지자체로 확대되고 기존 수혜를 받은 지자체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져 많은 국민들이 실질적인 기후환경개선 혜택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사설

들통 난 대촌농협 '장기집권' 꿈수

광주 대촌농협조합장이 정관을 바꿔 비상임조합장이 되려고 해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다고 한다. 현재 조합장은 상임조합장으로 3선까지만 할 수 있지만 비상임 조합장이 되면 무제한으로 임기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조합장의 정관변경 시도는 장기집권을 위한 꿈수다.

대촌농협은 최근 2021년 제3차 임시대의원회를 열고 정관 일부 변경안을 논의하고 상임이사를 뽑았다. 이 자리에서는 현재 상임인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하고, '조합장은 2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는 항목을 아예 '삭제'하자고 주최 측이 제안했지만 조합원들이 강하게 반발해 무산됐다.

대촌농협 조합장은 내년 3월 임기가 끝난다. 현재 3선이어서 더 이상 조합장을 할 수 없게 되자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정관을 바꾸려고 한 것이다. 대촌농협은 자산규모가 2,500억

원 이하여서 '총회 의결을 통해 상임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바꿀 수 있다'는 농협법의 맹점을 이용한 것이다.

농협법에는 자산규모 1,500억 원 이상이면 상임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자산규모 3,000억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비상임 조합체로 바뀐다. 이는 조합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경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런데 현실은 다르다. 좋은 의도로 도입된 비상임 조합 체제가 조합장의 영구집권을 위해 악용될 여지가 있다. 실제로 악용된 사례가 많아서 법령 개정 시급하다. 특히 내년 3월에 치러질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위해 해당 규정을 자신들 의도대로 바꾸면 경한법 제정 취지에 반하는 것은 물론 농협 발전에도 커다란 장애가 될 수 있다. 농협의 주인은 조합장이 아니라 조합원들이기 때문이다.

대선후보 붕괴참사 방문 바람직하다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공사장 붕괴사고 현장을 제일 먼저 찾은 대선 후보는 정의당 심상정이다. 심 후보는 지난 16일 예고 없이 참사 현장을 찾아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 위로했다. 당시 그는 취재진에게 "마음이 쓰여서 내려왔다. 참사가 났는데 그대로 있기가 죄송해 실종자 가족들을 불러왔다"고 절박하게 말했다.

아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등은 붕괴 현장에 오지 않았다. 다 사에 후보는 수일 전 이번 붕괴 사고를 언급하며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부실시공'의 문제를 또 한 번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부실시공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토건 비리의 온상이 된 '페이퍼 컴퍼니 빌드업'이라며 '건설업계 페이퍼 컴퍼니 근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의 시급성과 실종자 가족 마음 등을 고려할 때 대선 후보가 붕괴 현장을 찾아 후진적인 개별 참사를 지탄하고 극복 방안을 밝히는 것은 상식에 속한 것이다. 물론 붕괴 사고 초기에는 2차 피해 우려와 지자체 및 정부 당국의 직접적인 현장 지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자체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지만 사고 발생 일주일도 넘었는데도 방문하지 않거나 일정을 잡지 않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지난해 6월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에 이어 7개월 만에 일어난 아파트 붕괴 참사보다 더 긴급한 일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실종자 가족과 지역민의 상처를 보듬고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것은 지극히 온당한 일이 아닌가. 여기저기 표심을 잡겠다고 나서고 있는 대선 후보들의 행보가 아쉽고 아쉬우게 보인다. 지역민들은 그들의 대응 방식과 마음 씀씀이를 유심히 봐둬야 한다.

겨울철 공동주택 화재 안전관리 강화해야

기고

화재 발생과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겨울철을 맞아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 관리가 화두다. 공동주택은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형태로 한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인근 세대로 확산될 위험이 높아 화재 초기 자체 공동 대응과 대피가 중요하다.

공동주택 화재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부주의이다. 부주의는 충분한 예방이 가능하다. 외출시에는 난방용품 등의 전원을 끄고 콘센트를 빼고 화기나 전기용품 사용 방법을 숙지해 특별히 관리해야 한다.

화재예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발생했다면 먼저 신속하게 대피해야 한다.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 이후에는 119에 신고하고 상황에 맞게 소화기나 유내 소화전을 활용해 초기 화재 진압을 시도해야 한다. 화재가 초기를 넘어 섰을 때는 코와 입을 젖은 수건으로 막고 바닥에 엎드려 벽을 따라 외부로 나와야 한다.

고층에서 화재가 난 경우 엘리베이터 사용이나 계단 사용이 불가할 가능성이 크므로 옥상으로 대피해야 한다. 옥상으로 대피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 화재발생시 자동으로 개폐되는 옥상출입문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면 신속하게 대피



김용호  
화순소방서장

가 가능하고 구조 속도도 빨라질 것이다.

입주민, 관리사무소 등 공동주택 관계자들은 화재예방 안전관리를 위해 소화기, 유내소화전 등의 사용법 숙지해야 한다. 피난 유도선과 피난 시설 위치·사용법 도식화안내표지를 등을 설치하고 지하 주차장 내 배관 단열재료를 불연재료로 교체하는 것을 추천한다. 안내방송을 활용해 안전의식이 고취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해 화재안전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공동주택에서의 화재는 인명피해 위험이 매우 높아 관계인의 안전의식 가능성이 크므로 옥상으로 대피해야 한다. 옥상으로 대피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 화재발생시 자동으로 개폐되는 옥상출입문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면 신속하게 대피

기고



박희경  
서구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오늘도 무거운 마음으로 출근길에 나선다. 아니나 다를까. 선별진료소엔 이미 긴 줄이 늘어섰다. 추위에 떨며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을 볼 때마다 미안하고 안쓰럽다.

서구 선별진료소의 하루 평균 검체 건수는 약 1,500건 정도로 광주 자치구로는 제법 많은 편이다. 전수 검사를 실시했던 학교의 해제 전 검사가 있는 날이면 검체 건수는 더욱 늘어났다.

그에 비해 검체 가능한 자격을 지닌 직원은 7명뿐이다. 여기에 시에서 파견한

긴급의료지원단 9명이 도움을 주고 있다. 그분들의 도움으로 그나마 일주일여 하루는 쉴 수 있게 되었다.

사무실로 들어와 역할조사팀에 들른다. 선별진료소로부터 인계 받은 확진자에게 전화하느라 아침부터 복새통이다.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한 역할조사는 팀의 가장 중요한 업무다.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와 함께 밀접 접촉자 여부, 자가 격리 대상 여부 등을 판단하고 결정한다. 역학조사 결과 접촉자가 불특정 다수이거나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에 재난문자 발송을 의뢰한다.

이밖에도 직장·학교의 현장조사, 확진자 구급차 이송 및 생활비 지급, 구호용품 제공 등 모두 역할조사팀에서 하는 일이다.

역학조사 결과 확진자가 다녀간 곳은 방역대응팀이 나선다. 매일 평균 10개소 내외를 소독과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퇴근 무렵이면 검사 현황, 백신 접종 현황, 이상반응 신고 현황 등을 보고받는다. 의뢰한 검사 모두가 음성인 나오고, 집단 감염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퇴근길에 나선다.

코로나19의 최일선, 보건소의 하루

백신 부작용, 돌파감염, 무증상 감염 등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꺼리는 사람이 꽤 많다. 백신을 맞아야 감염되고, 무증상 감염자는 항체가 형성됐으니 백신접종이 필요 없다는 논리다. 또한 코로나19의 전파력은 크지만 치명률(확진자의 사망률)이 낮다는 것도 백신 접종을 꺼리는 이유다.

물론 백신의 예방 효과가 100%는 아니다. 그렇더라도 백신 미접종자는 접종자에 비해 감염 위험은 2.7배, 위중증 위험은 22배, 사망 위험은 9.4배 높다고 한다. 또한 백신 추가 접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예방 효과를 8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무증상 감염자, 완치된 확진자는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항체도 시간에 따라 약해지며, 항체 보유자라도 재감염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그 수는 많지 않지만 국내에서도 재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작년 말부터 확진자와 치명률의 급격한 증가로 일상회복이 잠시 멈춰 서고 말았다. 백신이 일상 회복을 가능하게 할 것이

라는 기대가 컸던 만큼 상실감 또한 크다. 백신의 지속효과에 대한 좀 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이 든다.

새해를 맞아 이러한 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치료제가 우리나라에도 곧 도입된다. 작년 백신에 이은 두 번째 시도로 확실한 반격에 대한 기대가 크다.

백신과 치료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우리의 행동양식이다. 올해부터는 '사회적거리두기'라는 타운에서 벗어나 '자율적거리두기'로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 백신까지 접종하였는데 중전의 사회적거리두기로 후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중요한 점은 일상회복은 통제됐던 자유의 회복일 뿐, 코로나의 종식이라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코로나19의 강력한 전파력은 과거 사스, 메르스 때처럼 빨리 종식되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19에 속절없이 당한 1년, 반격에 성공하지 못한 1년을 보냈다. 3년째인 올해는 백신과 치료제, 그리고 자율적거리두기의 삼박자로 코로나 종식의 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

하며, 사회적 부를 더 증진시킨다고 하였고. 즉, 우리나라 농업은 ESG 경영의 G 부문에서도 나름 큰 역할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우리 농업에 이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큰 특징은 바로 초(超) 연결성이다. 초 연결성을 통해 농업은 더 새로운 길로, 더 다양한 농업으로 나아가는 단계이다. 앞으로 이뤄질 농업은 ESG 경영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인정받고 또 우리나라 식량주권을 확보하며, 그리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농업이다.

2022년은 임인년, 검은 호랑이의 해다. 검은 호랑이는 호랑이 중에서도 강력 한 리더십, 독립성, 도전 정신, 강인함, 열정 등을 상징한다고 한다. 우리나라 농업도 검은 호랑이의 기운으로 미래의 새로운 농업으로 나아가길 기대하는 1월이다. /오성진 농협중앙교육원 교수

특지광장

지속 가능한 발전에 뿌리를 둔 ESG는, 2004년 유엔 글로벌 콤팩트에서 그 개념이 처음 언급된 이래 2006년 UN 주도하에 유엔 책임투자원칙이 결성돼 본격적으로 ESG 투자가 확대되기 시작했으며, 2015년 이후 활성화됐다.

ESG는 환경·사회·기업 지배구조의 영어 약자로, 기업이나 비즈니스에 대한 투자자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세 가지 핵심 요소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업과 투자자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해지면서 세계적으로 많은 금융기관이 ESG 평가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영국 등 많은 나라에서 연금금을 중심으로 ESG 정보 공시 의무 제도를 도입했다.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도 사회 활동 실시 및 홍보, 친환경 활동과 저탄소

운동 진행, 취약계층 지원 및 봉사활동 실시 등의 활동을 추진하면서 ESG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농업은 이미 ESG 경영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8년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의 가치 평가는 연간 약 27조8993억 원으로 농업의 실물 부가가치 이상의 가치를 매년 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환경보전(홍수 조절, 지하수 함양, 기온 순화, 대기 정화, 토양 유실 저감 등)의 경제적 가치만 18조6343억 원에 달하고, 여기에 더해 농촌경관 2조452억 원, 농촌 활력 제고 등 사회·문화적 기능이 4조1040억 원, 식

ESG 경영과 농업

량안보 기능이 3조1158억 원 등의 공익적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한다. 이런 결과만 봐도 농업이 적어도 ESG 경영의 E와 S 부문에서 많은 역할을 해왔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ESG 경영의 G 부문이 취약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게 우리나라의 농업이다. 우리나라는 가족농 위주의 농업을 해왔고 현재도 가족농 중심으로 농가 경영구조가 이뤄져 있다. 그래서 흑자는 농업의 경쟁력을 위해서 기업농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네델란드 농촌 사회학자 안다우 핀 더르 플루흐는 그의 책 '새로운 농민'에서 가족농(농민 영농방식)이 기업농(경영자 영농방식)보다 자연에 더 기초하며,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연속성을 띠고 있고, 농장들 사이의 호혜적 상호관계가 강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3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 신고	182	▲인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수도 고장신고	121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전기고장 신고	123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응급의료센터	1339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1989년 6월 29일 창간		<b>전남매일</b>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판)	
회장 <b>朴哲弘</b>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b>金善男</b>		편집국장 <b>姜賢秀</b>	
대표전화 062) 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04, 010-4601-5323			
정 치 부 (062) 720-1060-62	경 제 부 (062) 720-1066-67	사 회 부 (062) 720-1043	동 부 권 본 부 (061) 743-4200-01	문 화 부 (062) 720-1071	사 전 부 (062) 720-1040
사회 2부 (062) 720-1043	동부권본부 (061) 743-4200-01	문 화 부 (062) 720-1071	사 전 부 (062) 720-1040	기획탐사부 (062) 720-1045-46	
편집부 (062) 720-1073	논 설 실 (062) 720-1006	전 산 실 (062) 720-1033	월 간 국 (062) 720-1007	판 매 국 (062) 720-1004	사 업 국 (062) 720-1011, 1099
광 고 국 (062) 720-1016-17	관 리 국 (062) 720-101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우 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98 (사동)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